

목 적

본 협력 사업의 목적은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에 소장되어있는 노후화되고 손상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CD에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장된 자료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된 CD 세트를 제작하며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과 몽골 양측은 2011년 10월에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언어문학연구소는 공동 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 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들을 검토하였다.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2011년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우르트나산, 알탄투야,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케를렌투울, 언어문학연구소의 간바타르 등을 포함한 몽골측 전문가들과 더불어, 한국측 전문가인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본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송민선 실장, 국가기록원의 이지영 공업연구사, 영화진흥위원회의 김기탁, 주현승, 문화방송의 최상일 피디,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종태 학예연구관 등을 비롯하여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 현황’,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의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활용’,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료 현황 및 향후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계획’, ‘민요 아카이브의 기능과 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시청각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등의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한국의 무형유산 정보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활동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전문가 회의 기간 동안 몽골측 참가자들은 MBC의 통합 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듣고 MBC 라디오국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영상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등을 견학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무형유산 영상자료

들의 보존 기술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무형유산 자료의 아카이브화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학습을 하였다.

몽골의 언어문학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기 테이프의 복구와 디지털화를 위한 운영 지침은 투무르토구 소장의 승인 하에 마련되었다. 사업실행팀과 전문가팀의 구성 또한 운영지침에 포함되었다. 업무 분담과 조건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 역시 실행 기관인 언어문학연구소에 의해 마련되었다.

전문가팀은 2011년 11월에 수행된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교육부와 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언어문학연구소 및 국립라디오 방송국 등 각 관련 기관에 소속된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전문가팀의 역할은 행정적 절차에 관한 자문 및 자료 복원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유산의 지정과 분류, 보관 상태와 디지털화 활동의 모니터링 등이다.

전문가팀은 복원되고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하였다. 또한 총 10장으로 구성된 CD 세트에 포함될 자료들을 선별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였다.